

창경궁 영춘헌과 집복헌의 건축과 변화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change-over of Yeongchunheon and Jipbokheon in Changgyeonggung Palace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김 버 들*

Kim, Bue-Dyel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공학박사)

Abstract

Although Changgyeong-gung was devastated by Japanese invasion in 1592, it was restored during the reign of Gwanhaegun, had remembered of early Joseon dynasty's architectural order. It was destroyed several times by fire after that but was rebuilt immediately. There are Donggol-do and Donggol-dohyeong, so we can find the change of architectures in Changgyeong-gung. Jipbokheon(集福軒) and Yeongchunheon(迎春軒) are marked in another location and architectures in Donggon-do and Donggon-dohyeong. The reason has been known that it was rebuilt after the fire in 1830.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cord of birth of crown prince Sado and movement of coffin of King Jeong-jo in funeral ceremony, it was confirmed that notation of Jipbokheon and Yeongchunheon was misprinted. In particular, Yeongchunheon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the existing building was built by extending it while applying the asymmetrical building with four-purlins structure metho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that it was reconstructed by moving Yeonyeonghap when it was destroyed by fire 1830. And although now Jipbokheon and Yeongchunheon(延英閣) are connected, northern part of Jipbokheon did not burn in the fire, so it was judged that original architectural plan were maintained until now. The current building north of Jipbokheon was built before 1695 (21st year of King Sukjong), which was first identified in the Gunggeolji(宮闕志),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have been a part of Janggyeongmun(長慶門) inner corridor built before 1633. The present building north of Jipbokheon has great architectural significance in that it maintains the structural method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hich was often applied to buildings with a small scale of inner palace.

주제어 : 집복헌, 영춘헌, 창경궁, 측4량가

Keywords : Jipbokheon, Yeongchunheon, Changgyeonggung Palace, Asymmetrical Building with 4-purlins

1. 서론

창경궁의 건물들은 임진왜란 때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건축을 기억하고 있던 광해군 연간에 대부분 원위치에 재건하였다. 이후 인조 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많은 건물이 불에 타자 다시

지었다. 이괄의 난 이후 재건된 건물들은 순조 때에 또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재건하였다. 현재 창경궁에 남아 있는 건물은 홍화문과 명정전 등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순조 때의 화재 이후 재건한 것들이다. 다만, 순조 때 발생한 대화재 이전의 건물은 「동궐도」가 있어 외양을 확인하고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내부 구조가 변형되거나 훼손된 건물들은 「동궐도형」을 통하여 평면 구조를 확인하고 입면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namu5050@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하였음.

본고에서는 창경궁의 영춘헌과 집복헌에 집중하여 화재 전의 건물과 화재 후 재건한 건물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현존 영춘헌과 집복헌에서 1830년 화재 때에 불타지 않고 남았거나 화재 전의 구조대로 복원했다고 추정되는 부분과 화재 후에 다른 구조로 재건한 부분을 확인하고 양자의 구조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본 고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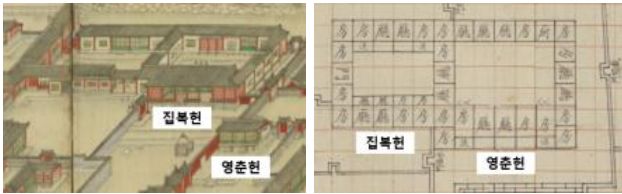


그림 1.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집복헌', '영춘헌' 표기 위치

그런데 「동궐도」에 '영춘헌(迎春軒)'으로 표기된 건물이 「동궐도형」에 '영춘헌(迎春軒)'으로 표기된 건물과 다르다. 「동궐도형」에 '영춘헌'으로 표기된 건물에는 현재 "영춘헌" 현판이 달려 있어 현재의 영춘헌은 곧 「동궐도형」의 '영춘헌'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궐도」에서는 이 건물을 '집복헌(集福軒)'으로 표기하였다. 「동궐도형」에서는 영춘헌에 이어진 서쪽 건물을 '집복헌'으로 표기했지만, 「동궐도」에서는 「동궐도형」의 '집복헌'에는 건물명을 표기하지 않고, '영춘헌'으로 표기한 건물을 '집복헌'으로 표기해 놓았다.

따라서 '영춘헌'과 '집복헌'에 해당하는 건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궐도」와 「동궐도형」에서 '영춘헌' 건물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동궐도」제작자의 실수 때문인지, 순조 때의 화재 전 건물과 화재 후 재건한 건물의 명칭이 변했기 때문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동궐도」의 '영춘헌' 표기가 제작자의 실수라면,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된 건물의 명칭, 나아가 명칭 표기 없이 그려진 건물들의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국왕이 이동하며 거친 문들의 이름이 확인되는 기록이나 영춘헌과 집복헌의 구조가 확인되는 기록을 통하여 영춘헌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궐도」에 명칭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건물의 명칭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현존 건물의 가구와 평면을 「동궐도」, 「동궐도형」 및 각종 기록과 대조하며 화재 전 구조를 유지한 부분과 화재 후 구조가 달라진 부분을 판단하고 각 부분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2. 집복헌·영춘헌 영역 건물들의 명칭과 위치

2-1. 집복헌의 용도와 구성

'집복헌'은 1695년(숙종 21) 이후 증보된 「궁궐지」에서 처음 확인된다.¹⁾ 숙종은 창덕궁, 창경궁 및 후원에 있는 건물 중 이름이 없던 건물에 이름을 붙였으며, 이름이 있는 건물에도 새로 이름을 부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 때 편찬된 「궁궐지」의 해당 건물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집복헌'은 위치만 기재한 것을 보면 집복헌 건물은 인조 이후 숙종 이전의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 집복헌은 영조의 큰아들인 효장세자를 저주하였던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다.²⁾ 영조는 1721년(경종 1)과 1728년(영조 4)의 흉사를 언급하며, 집복헌 바닥과 기둥을 일부 교체하도록 하였다.³⁾ 이후 집복헌은 후궁들이 출산하는 산실로 사용되었다. 1735년(영조 11) 1월 21일에 집복헌에서 영빈이씨가 사도세자를 출산하였다. 출산 후 백일이 가까워지자 영조는 대신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복헌에서 원자를 보여주었다.⁴⁾ 4월 12일(음)에 대신들은 집복헌에서 사도세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당시 영조는 집복헌의 온돌방 2칸 중 상방[윗방]의 북쪽에 앉아 있었으며, 사도세자는 영조의 조금 남쪽에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다. 상방과 하방[아랫방]은 장지로 구분되었으며, 장지에 달린 호(戶) 2개를 열어 두었다. 대신들은 청에서 대기하다가 하방의 문지방 밖에서 배알하였다. 이로부터 집복헌에는 청과 두 칸으로 구획된 방이 있었으며, 방 사이에는 장지를 설치하고 장지 중간에 두 개의 여닫이문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집복헌은 산실로 이용되었다.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는 1790년(정조 14)에 이곳에서 순조를 낳았다.⁵⁾ 집복헌은 세자빈을 간택하는 장소로도 쓰였다. 1800년(정조 24)에 집복헌에서 세자빈의 초간택을 행하

1) 『궁궐지(宮闕志)』, 궁궐지01-090_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사이트 集福軒在通政殿之東

2) 『승정원일기』, 영조 6년 3월 10일

3)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1일

4)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4월 12일

上御集福軒 藥房引見時(중략) 午牌後 諸臣自延生門入 至星鳥門外 列坐地上 少頃司諫來傳 殿坐諸臣 卽隨而入 歷二小門 至集福軒 列伏於廳上 俄而 黃門開房門 導之以入 房爲二間 而中設莊子 開其兩戶 上御上房之北 元子臥其前 稍南而東首 中官侍伏 左右諸臣 遂進伏於下房闕外 如常儀訖

5) 『정조실록』, 정조 14년 6월 8일, 첫 번째 기사

었다.⁶⁾ 이렇듯 집복헌에서 왕자를 출산하거나 세자빈을 간택한 것을 보면, 집복헌은 원칙적으로 왕실 가족과 내관, 궁녀들만 출입이 허락되는 대내(大內) 영역에 위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서 집복헌은 ‘내헌’과 ‘외헌’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성록』을 보면, 정조 이후 집복헌에서 행한 행사의 장소는 대부분 ‘집복헌외헌(集福軒外軒)’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집복헌외헌에서의 행사는 정조가 신하들과 정무를 의논한 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자(순조)의 강학(講學)에 집중되어 있다. 1800년(정조 24)에는 집복헌 외헌에서 세자(순조)의 관례를 약식[權停禮]으로 치렀다. 그러므로 집복헌은 내헌과 외헌으로 구성되었으며, 내헌은 왕자를 출산하는 산실이나 세자빈을 간택하는 곳으로 쓰이고, 외헌은 원자의 학습 처소, 세자의 약식 관례 처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집복헌 내헌은 여성의 출입만 허용되는 반면, 외헌은 원자의 교육이나 세자의 관례를 수행하는 관리의 출입이 허용되어, 내헌에 비해 위치나 동선의 개방성이 강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두 건물이 남북으로 배치되었다면, 북쪽(안쪽) 건물이 산실이나 간택처로 쓰인 내헌이고 남쪽(바깥쪽) 건물이 원자의 교육처가 된 외헌에 해당할 것이다.

2-2. 영춘헌의 용도와 내부 구조

영춘헌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1793년(정조 17) 3월 1일자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며, 숙종 때 편찬된 『궁궐지』에는 없다. 그러므로 영춘헌은 숙종 이후, 179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볼 수 있다.

정조는 영춘헌에 자주 임어하였으며,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정조는 영춘헌을 생모 혜경궁 홍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생일잔치를 준비하여 지의(地衣)와 주렴 등을 설치한 기록에서는 영춘헌의 내부 평면 구성이 확인된다.

영춘헌에는 동서로 온돌방이 있었고, 가운데 대청이 있었으며, 대청은 남쪽 퇴[南退]와 북쪽 청[北廳]으로 나누었다. 남쪽 퇴에는 난간이 있었으며, 대청의 남퇴와 북청[堂] 사이에 분합이 있어 공간을 분할하였다. 온돌방도 남·북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었다.⁷⁾ 대청의 남퇴와 북청 구획과 동일한 분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의를 깔고 발을 설치한 기록에서 영춘헌의 구조는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표기해 놓은 건물과 전혀 다르다. 「동궐도」의 ‘영춘헌’은 정면이 3칸에 불과하여 대청, 동·서 온돌로 구성되는 평면을 갖출 수 없는 규모이다. 또한 건물 남쪽 외벽에는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난간이 없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에서 구조가 확인되는 영춘헌은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표기된 건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표기한 건물의 주 건물은 전면이 총 7칸으로 중앙의 4칸 청과 서쪽 1칸 방, 동쪽 2칸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또한 청의 남단에는 계자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청의 북쪽에는 분합이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는 분합을 경계로 대청의 남쪽은 퇴, 북쪽은 북청 또는 당(堂)으로 구분되는 『승정원일기』의 묘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영춘헌은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표기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궐도」의 ‘영춘헌’ 표기는 영춘헌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잘못 기입한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과 「동궐도」를 비교해 보면,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표기된 영춘헌 서쪽의 건물이 1830년 화재 전의 집복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기록에서 집복헌은 ‘내헌’과 ‘외헌’으로 구성되며, 내헌은 여성의 산실, 간택처 등으로 쓰이고 외헌은 국왕·세자의 정무처나 학습처로 쓰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표기된 건물의 서쪽 건물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 건물에는 건물 외벽에 분합을 설치하여 난간이 없으며, ‘내헌’에 해당하는 건물은 전면 2칸 대청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방이 있으며, 서쪽 방은 다시 동과 서 두 칸으로 구획된 것이 확인된다. 두 칸으로 구획된 서쪽 방은 『승정원일기』의 사도세자가 출생한 집복헌의 상방[윗방·서쪽칸]과 하방[아래방·동쪽칸] 구획과 부합한다. 영조는 상방의 북쪽에 앉아 신하들을 인견한 것이다. 따라서 집복헌과 영춘헌의 건물 위치는 「동궐도」에 ‘집복헌’과 ‘영춘헌’으로 표기되었고, 현재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건물들에 해당한다.

또한 1812년(순조 12) 7월 27일 영춘헌 동쪽 뒤편 행각의 서까래와 도리를 개수하는 공사를 7월 30일에 시작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⁹⁾ 이는 영춘헌이 「동궐도」

6) 『정조실록』, 정조 24년 2월 26일, 두 번째 기사

7)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12일 기사

持東西溫埃大廳南退北廳所鋪馬蹄紋地衣排設見樣而退(중략)命設簾於軒上 南退當檻 設紅竹簾 大廳當閣 設龜紋朱簾 堂中兩旁朱簾 中間漆簾(중략)西溫埃北窓及南邊上下間之間 設朱簾(중략)大廳東北壁 設書屏

8) 서쪽 끝 칸은 전면의 다른 칸들에 비해 양통이 좁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영춘헌 본체가 아니라 행각으로 본다.

에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된 건물처럼 독립된 전각이 아니라, 행각을 거느린 전각이었음을 뜻한다. 이 역시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표기한 영춘헌의 구조와 일치한다.

집복헌과 영춘헌의 건물 위치는 건물 외부의 시설에서도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에서 정조는 1793년 이래 자주 영춘헌에 임어하여 정무를 보거나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담은 기록에서는 영춘헌을 ‘편전’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¹⁰⁾ 영춘헌은 국왕이 임의롭게 정무를 보는 건물로 사용되었고, 그렇게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춘헌은 국왕의 이동 및 경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표기된 영춘헌 일곽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확인된다.

건물 앞에는 두 단으로 구성된 석물이 그려져 있다. 말에 오르내릴 때 딛는 노뚝돌이다. 궁중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국왕에 국한된다. 영춘헌에 정조가 자주 임어 했다는 점에서 정조는 이 노뚝돌을 이용하여 말에서 내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뚝돌에서 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건물이 영춘헌이 될 것이다. 「동궐도」에서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건물은 전돌 담장과 널판으로 구획된 담장을 지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표기된, 노뚝돌 북쪽의 건물이 곧 영춘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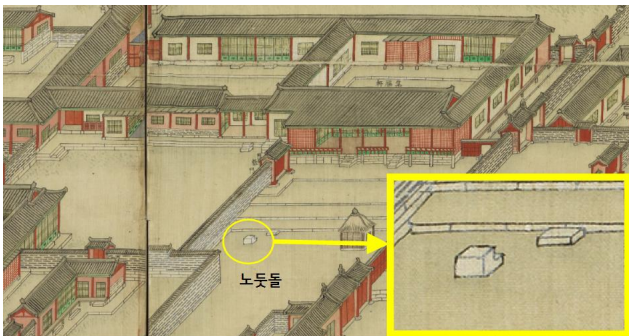


그림 2. 집복헌 주변 시설(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편집)

2-3. 영춘헌 출입 동선상의 문과 문의 명칭

(1) 영춘헌 출입 동선상의 문

앞 절에서는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집복헌과 영춘헌을 구조를 「동궐도」의 건물과 비교하

9) 『승정원일기』 순조 12년 7월 27일 기사
徐英輔 以戶曹言啓曰 迎春軒東邊後行閣橡木道里 及養和堂後面春舌等修改吉日 令日官崔福基推擇 則今七月三十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舉行 何如 傳曰允

10) 『승정원일기』에서 ‘영춘헌’으로 표기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일성록』에는 단지 ‘편전’에서의 일로 표기하였다.(『정조실록』 1796년(정조 20) 6월 16일 첫 번째 기사와 비교)

여 「동궐도」의 ‘영춘헌’ 표기는 오기로서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표기된 건물이 영춘헌이고, 그 옆에 건물명이 표기되지 않은 건물이 집복헌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조가 영춘헌으로 출입한 동선에 놓인 문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출입 기록을 통하여 「동궐도」에 명칭이 기록되지 않은 문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1795년(정조 19)에 정조는 영춘헌에서 화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돈화문을 나가기까지 ‘영춘문(迎春門)-천오문(千五門)-만팔문(萬八門)-보정문(保定門)-송지문(崇智門)-집례문(集禮門)-경화문(景化門)-동룡문(銅龍門)’의 순서로 통과하여 창덕궁 돈화문에 이르렀다.

<그림 4>

1800년(정조 24)에 정조가 영춘헌에서 사망하자 환경전으로 빈전을 정하고 정조의 시신을 옮겼다. 영춘헌에서 출발하여 환경전에 이르기까지 운구 행렬은 ‘영춘문(迎春門)-천오문(千五門)-교태문(交泰門)-영청문(永淸門)-빈양문(賓陽門)-홍인문(弘仁門)’을 차례로 통과하여 환경전(歡慶殿)에 이르렀다.

이 두 경우 모두 영춘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춘문’을 통과해야 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동궐도」에는 정조가 생시와 사후에 거친 문 중에서 영춘문만 표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춘문 다음으로 통과한 천오문과 가까운 곳에 그려진,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문이 곧 영춘문임을 알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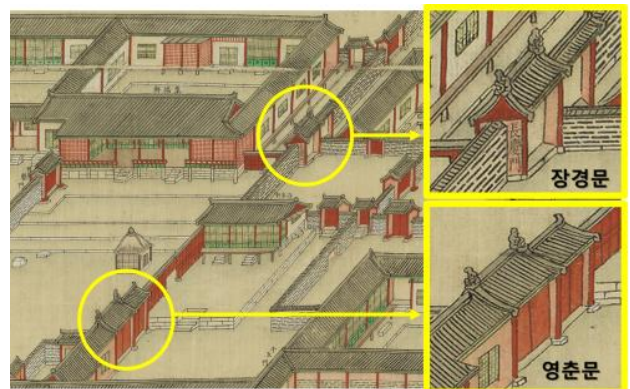


그림 3. 장경문과 영춘문(동아대박물관 소장본)

이러한 사실 역시 「동궐도」의 ‘영춘헌’ 표기가 오기임을 알려준다.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표기된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문은 천오문이므로, 이 건물이 영춘헌이라면, 이 건물이 위치한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

11)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삼방(三房)「초상제구(初喪諸具)」靈牀移奉同日夜子時由迎春門千五門交泰門永淸門賓陽門弘仁門移奉于歡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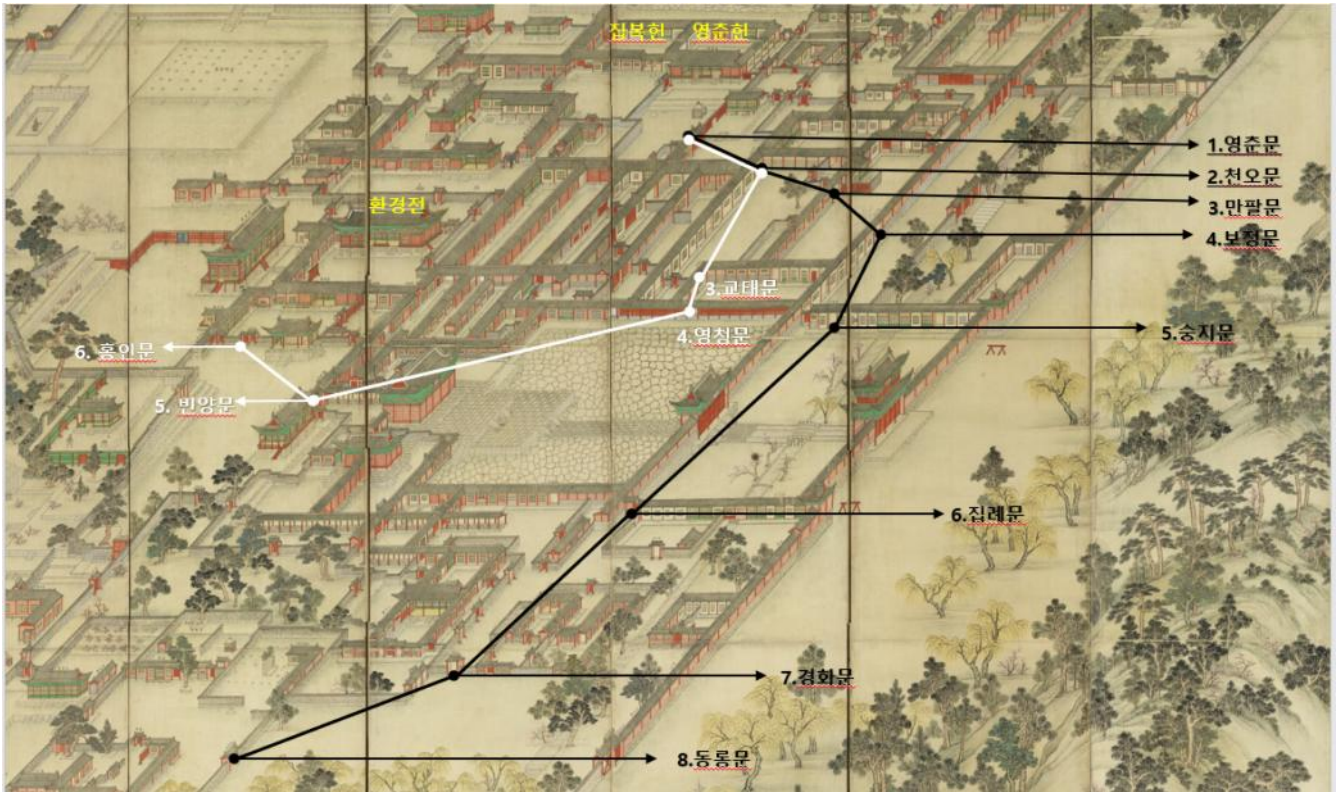


그림 4. 정조의 화성 원행 동선(흑색)과 정조의 재궁 이동 경로(백색)(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 편집)

선에 ‘영춘문’은 놓일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정조가 거친 동선에서 천오문보다 안쪽에 있는 문이 영춘문이고, 그 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건물이 곧 영춘헌이 된다.

(2) 영춘문(迎春門)과 여경헌(餘慶軒)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기재한 영춘헌의 동쪽과 동남쪽에 두 개의 문이 그려져 있다. 이들 두 문은 모두 취두를 올렸으며, 협문이 달려 있어 국왕 전용의 문이었음이 확인된다. 이 중 동쪽 문에는 ‘장경문(長慶門)’이라는 표기가 있다.

그러므로 영춘헌 남쪽에 있는 문이 ‘영춘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된 건물의 명칭은 무엇일까? 『동궐도』에서 이 건물과 영춘헌 사이에는 널판으로 만든 담이 있고, 널담 중간에는 문짝을 달지 않은 문이 있어, 임의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영춘헌 권역에 속하는, 영춘헌의 부속 건물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동궐도형』의 해당 위치에 건물이 표시되지 않아 1830년(순조 30) 화재로 소실 된 후 재건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궐도』에는 없지만, 현종 연간의 『궁궐지』와 순조의 『춘방일기』에 ‘여경헌(餘慶軒)’이 등장한다. 궁궐지에는 여경헌의 위치를 영춘헌의 동쪽에 있고 여경헌의

동쪽에 있는 문이 천오문이라고 하였다.¹²⁾ 『춘방일기』에는 1800년(정조 24) 시강원 문학이었던 김굉이 3월 28일 여경헌에서 세자에게 석강을 하였다고 하였다.¹³⁾ 이 기록에 따르면 여경헌은 천오문의 서쪽에 있는 것이 된다. 『동궐도』에서 천오문은 정서 방향으로 영춘문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북쪽에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한 건물이 있다. 『궁궐지』의 천오문과 여경헌의 위치 기록과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한 건물과 천오문의 위치로 보아 ‘영춘헌’으로 잘못 표기한 건물이 곧 『궁궐지』의 ‘여경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09년(순조 9)에 순조는 함인정의 평면을 넓힐 의도로 선대에 여경헌의 계판(階板)을 보충한 예를 언급하였다.¹⁴⁾ 순조는 여경헌에 적용한 것처럼 함인정 평주 바깥에도 계판을 설치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오기된 건물 전면에 계판이 설치되어 있다.

12) 『궁궐지』 권 5 餘慶軒在迎春軒東東曰千五門

13) 『龜窩先生文集續集(구와선생문집속집)』卷之四(권지사), 「春坊日記(춘방일기)」, 1799년 3월 28일
余與翰東 以對讀官入侍于春塘臺 先受儒生講 李集運通 直赴殿試 夕後收b095_338b卷 大駕還宮 考官持收卷詣閣 入侍于餘慶軒

14) 『승정원일기』 순조 9년, 3월 19일
上曰 涵仁亭 每於殿座時 有狹隘之歎 依先朝餘慶軒殿座時 補階板例 明日殿座罷後 令戶曹堂郎看審形止 量宜舉行 可也

따라서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표기된 건물은 『궁궐지』와 『승정원일기』에서 명칭이 확인되는 여경헌으로 판단된다.¹⁵⁾ 이상에서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궐도』의 전각과 문의 이름을 바르게 표기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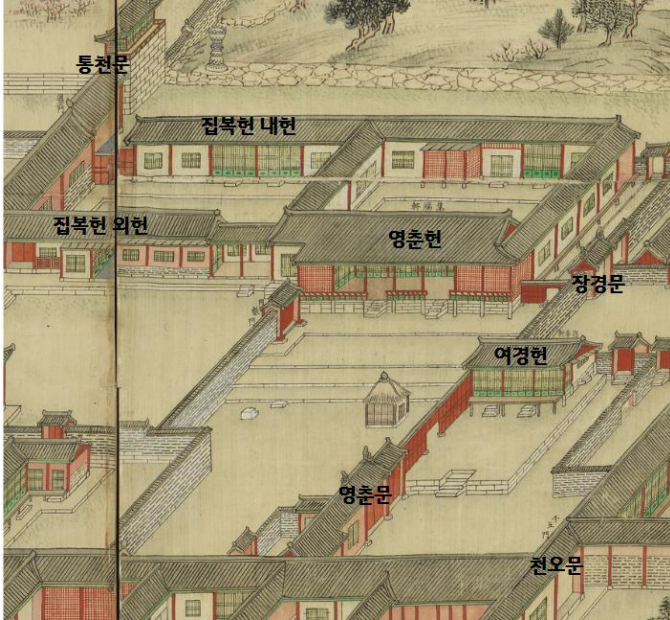


그림 5. 동궐도 집복헌·영춘헌과 주변(동아대박물관 소장본)

3. 집복헌·영춘헌의 화재 전과 후의 구조

3-1. 화재 전 영춘헌의 구조적 특징

집복헌과 영춘헌의 화재 전 건축구조는 『동궐도』에 그려진 외양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집복헌은 내헌과 외헌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도세자를 낳은 산실로 쓰인 내헌은 청과 2칸으로 구성된 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평면은 『동궐도』에서도 확인된다. 『동궐도』에서 집복헌 내헌은 서쪽에 2칸의 방이 있고, 방 옆으로 2칸의 마루[청]이 있다. 나아가 동쪽에도 방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동궐도』에 표현된 모습은 집복헌 내헌과 외헌 모두 맞배지붕이다. 또한 집복헌 내헌은 영춘헌의 후행각과, 외헌은 영춘헌 본채와 이어져 있다. 그런데 집복헌 외헌과 영춘헌 본채가 연결된 부분에서 특이한 모습이 확인된다.

영춘헌 본채의 동쪽 지붕은 팔작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서쪽은 끝의 한 칸이 영춘헌 본채의 퇴칸 만큼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이 부분은 영춘헌 본채가 아니라 행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양이 사실이라면 퇴칸이 설치된 본채의 처마와 양통이 이보다 좁은 서쪽 끝 칸의 처마의 수평이 구조적으로 같을 수 없다. 본채 전면 처마의 수평이 서쪽 끝 칸 처마의 수평보다 낮아야 한다. 두 부분 처마의 수평이 같았다면, 본채 전면 지붕의 물매와 서쪽 끝 칸 지붕의 물매가 달라야 한다. 퇴칸이 있는 본채 지붕의 물매가 서쪽 끝 칸에 비해 완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궐도』에서는 영춘헌 본채 후면의 동·서·북 행각의 처마를 같은 수평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춘헌 본채의 지붕 물매는 구조적으로 정면 서쪽 1칸의 지붕보다 완만하게 된다. 『승정원일기』에서는 본채 지붕의 물매가 서쪽 끝 칸보다 완만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1796년(정조 20)에 영춘헌에서는 혜경궁의 생일을 맞아 진찬연이 있었다. 전날에 정조는 신하들과 영춘헌에 가서 행사를 논의하였다. 이때에 영춘헌을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조는 신하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시수가 말하였다. “지금 이 건물은 좁은 데다 비가 새어 상한 부분이 많으니 수리해야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건물은 옛 제도에 인하여 간략하게 덧치마[附簷]를 더하였으므로 서까래가 평평하고 처마가 완만하다. 비가 스며들어 새는 데 이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 반드시 고치겠는가?” 심이지가 말하였다. “... 서온돌의 양판(仰板)은 비가 새서 더러워진 곳이 많으니 다시 칠해야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역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¹⁶⁾

위 인용문에서는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는 서온돌 천장을 비롯하여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춘헌 지붕은 ‘옛 제도로 인하여 간략하게 덧치마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그 결과 지붕의 물매가 완만하여 구조적으로 비가 새기 쉬웠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정조 때의 영춘헌 본채는 건물 전체를 일시에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증축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 지었다면 구조적으로 비가 새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15)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88쪽, 2005

『동궐도 읽기』에는 『동궐도』의 영춘헌으로 표기된 건물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이름 없는 건물을 여경헌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천오문은 여경헌의 동쪽의 문이 아니라 영춘헌의 동쪽문이라고 보았다.

16)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16일

時秀曰 今此殿宇狹窄之中 又多雨漏滲傷處 不可不修改矣 上曰 此軒因舊制而略加附簷 故椽桷平而簷溜緩 其致滲漏 勢耳 何必改也 願之曰(중략)西溫埃仰板 多滲汚處 改塗似好矣 上曰 此亦置之可也

다. ‘간략하게 덧쳐마를 붙였다’는 표현은 기존 건물을 변형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춘헌 본체는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을 확장,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정조가 그러한 건축 사실과 비가 쉽게 새는 구조적 특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춘헌 확장은 정조의 지시였으며 기록에서 ‘영춘헌’ 명칭이 정조 때에 처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춘헌 본체 자리에는 본래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록을 보면 이 건물은 장경문의 ‘내월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633년(인조 11)에 장경문 협문 1칸을 신축하고 장경문 내월랑 34칸을 건축하되, 33칸은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고 1칸만 신축하였다.¹⁷⁾ 『동궐도』에는 장경문과 장경문 협문이 확인되나, ‘내월랑’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경문 안쪽에 있는 건물은 영춘헌이다. 이로부터 장경문 안에는 광해군이 중건할 때에 지은 ‘장경문 내월랑’이 이괄의 난 때에도 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정조가 내월랑의 남쪽 부분을 확대하여 영춘헌으로 명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새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은 3량가인 기존 건물 전면에 덧쳐마를 달아 확장하되 확장한 부분 처마도리의 수평을 기존 건물 처마도리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면 지붕의 물매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가구는 측4량(仄四樑)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측4량이란 전면과 후면 처마도리의 수평이 같으면서 종도리가 양통의 중심선에서 뒤쪽으로 치우쳐 용마루를 기준으로 전면 지붕의 물매가 후면 지붕보다 완만하게 되는 가구를 뜻한다. 전면을 퇴로, 후면을 방으로 구획한 건물에 많이 적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건축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선 전기적인 가구법식으로 여겨진다.¹⁸⁾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서까래가 평평하고 처마가 완만하게 생겼다”는 정조의 설명과 일치한다. 또한 영춘헌 본체가 측4량 가구일 때, 본체보다 양통이 좁은 서쪽 끝 칸이 본체와 맞배 가구로 연결되면서 처마선이 동일 수평에 놓이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¹⁹⁾ 그리

므로 영춘헌은 1633년에 장경문 내월랑으로 표현된 건물의 일부를 정조 때에 측4량 구조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까래가 평평하고 처마가 완만하다’는 정조의 설명은 영춘헌을 포함하여 『동궐도』의 여러 곳에 표현된, 양통이 좁은 건물과 연결되면서도 용마루와 처마의 수평이 같은 건물의 가구법으로 추정되는 측4량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2. 화재 후 영춘헌과 집복헌의 변화

(1) 연영합을 옮겨 지은 영춘헌 재건

현재의 영춘헌은 1830년(순조 30) 8월 1일에 환경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타다가 1834년에 재건한 것이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영춘헌을 재건하면서 투입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이 확인된다.²⁰⁾ 의궤의 내용 및 현 건물의 평면과 가구를 『동궐도』와 비교 검토하면, 영춘헌은 완전히 소실되어 다시 지었음이 확인된다.

우선, 영춘헌은 재건하면서 현판을 다시 제작하였다.²¹⁾ 현판을 다시 제작한 것은 건물의 상부가 불타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장남궁(長男宮)을 헐어서 ‘영춘헌 차비제처(迎春軒差備諸處)’에 옮겨 세운다는 기록이 있어, 효명세자가 지은 천지장남궁(天地長男宮), 즉 연영합(延英閣)을 해체한 부재로 영춘헌을 재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요된 부재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른 부분과 달리, 영춘헌만은 ‘마루 7.5칸’과 ‘반자 4.5칸’을 ‘구재(舊材)’라고만 표현하여 기존 건물의 마루와 반자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혔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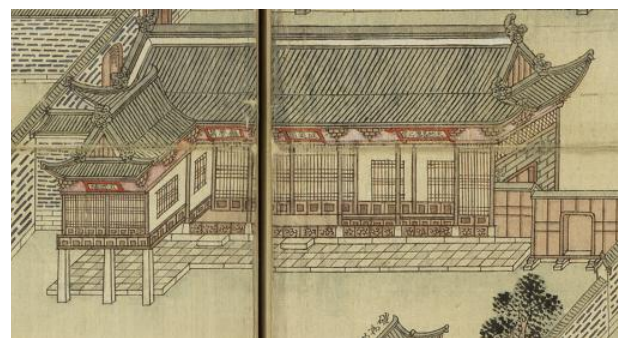


그림 6. 동궐도 중 천지장남궁(연영합)(동아대박물관 소장본)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궐도』에는 영춘헌처럼 용마루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처마의 수평이 같고 양통이 다른 맞배 건물들이 연결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비대칭 가구인 측4량과 대칭 가구인 3량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 迎春軒十四間, 柱木二十四箇, 大梁四箇, 宗樑五箇, 退梁八箇, 平梁二箇 衝樑一箇(중략)

21) 迎春軒懸板書寫官奉朝賀南公徹

22)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실입(實入)」, 迎春軒十四間(중략) 抹樓七間半 舊材 班子四間半 舊材

17) 『昌慶宮修理所儀軌(창경궁수리소의궤)』 四所(사소) 長慶門內月廊三十四間內[三十三間乃修補一間新造]

18) 김버들·이중서, 「조선전기 측4량 건축의 구조와 특성」, 건축역사, 28권 6호, 2019. 12.

19) 김버들·이중서, 「앞의 글」, 2019. 12. 이 경우 서쪽 끝 칸 지붕의 물매가 본체 전면 지붕의 물매보다 가파르게 된다. 그러나 『동궐도』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모습까지는

이 '구재'가 화재 전 영춘헌의 마루와 반자라면 영춘헌은 마다과 천장의 상당 부분이 불타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현관을 다시 제작했고, 장남궁(연영합)을 옮겨 재건한 것으로 미루어 '구재'의 사용은 곧 연영합의 마루와 반자를 변형 없이 그대로 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는 「동궐도」의 화재 전 영춘헌과 현재 영춘헌의 평면을 비교해 보아도 확인된다. 화재 전 영춘헌의 전면은 동쪽 2칸과 서쪽 1칸이 방이고 중간에 4칸의 마루가 있다. 그림의 마루는 퇴칸으로, 분합문이 남쪽 퇴칸 마루와 북쪽 마루[堂]를 구분한다.²⁴⁾ 그런데 「동궐도형」에 표현된 영춘헌의 평면은 이와 크게 다르다. 「동궐도형」의 영춘헌은 동쪽 3칸과 서쪽 2칸이 방이고 중간의 2칸이 마루이다. 방은 동쪽 끝칸과 서쪽 끝칸은 남북 2칸 규모인 반면, 다른 방들은 남쪽에 반칸의 퇴칸을 두고 북쪽 1.5칸을 방으로 구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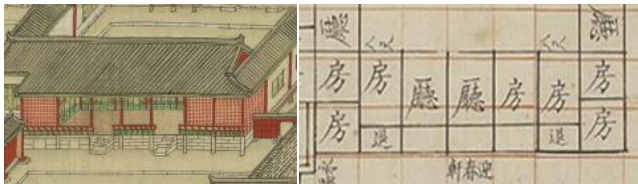


그림 7. 동궐도와 동궐도형의 영춘헌

이와 같은 평면은 「동궐도」에 그려진 연영합과 비슷하다. 연영합은 서쪽에 돌출된 누마루를 제외하면 전면 7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이 중 누마루 동쪽 부분의 칸 구성은 「동궐도형」의 영춘헌과 일치한다. 동쪽 끝칸은 전체가 방이고, 둘째와 셋째 칸은 전면에 퇴마루를 둔 방이다. 넷째와 다섯째 칸은 전면에 퇴마루를 둔 청[당]이다. 영춘헌의 마루[청]가 화재 전에는 전면 4칸 규모였다가 화재 후에 전면 2칸으로 축소된 것과, 장남궁(연영합)을 헐어서 영춘헌 재건에 사용했다는 의례의 기록, 「동궐도」의 연영합과 현 영춘헌의 일치하는 평면을 종합하면, 현 영춘헌은 연영합의 가구와 평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구재'로 표현된 마루와 반자는 연영합에 썼던 부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²⁵⁾

23)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승전(承傳)」, 癸巳(계사) 十二月(12월) 中使金承業·吳鶴昌聽傳教分付內 長男宮撤毀移建於迎春軒差備諸處 壹院撤毀材瓦石子 出送關門外 關內役事切勿混用事

24)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16일 『승정원일기』에서는 영춘헌이 '동·서 온돌, 대청의 남퇴·북청[東西溫堦大廳南退北廳]으로 구성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주렴을 대청 분합에 거는데 '당의 두 편에는 주렴을, 중간에는 칠렴을 건다[設龜紋朱簾 堂中兩旁朱簾 中間漆簾]'고 표현하여 대청이 3칸이었을 가능성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궐도」의 표현과 달리 좌우 각 2칸의 방과 중간 3칸의 청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남은 부분과 재건한 부분을 결합한 집복헌 개건 기록에는 집복헌도 불타 재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현 구조를 살펴보면 집복헌의 내헌 부분은 불타지 않고 남았으며, 외헌 부분만 불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집복헌은 남쪽과 북쪽, 서쪽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동궐도형」에서 '집복헌(集福軒)'을 남쪽 건물 전면에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아, 남쪽 건물을 본체로, 북쪽과 서쪽의 건물을 행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화재 전 집복헌이 후궁의 산실로 쓰인 내헌과 국왕의 정무처로 쓰인 외헌으로 구성되어 본체와 부속채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동궐도」에는 집복헌은 남쪽과 북쪽 건물만 있을 뿐 서쪽에 행각이 없다. 집복헌 외헌의 대문과 연결된 서쪽 행각은 집복헌 서쪽 정일재의 행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 집복헌의 서쪽 행각은 정일재의 동행각을 화재 후에 집복헌의 서행각으로 삼거나 서행각으로 재건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 집복헌에서 화재 때에 불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부분은 '집복헌 외헌'으로 불렸던 부분이다. 현 집복헌의 남쪽 건물, 즉 '외헌' 부분은 1고주 5량가, 팔작지붕으로 조선 후기 건축의 전형적 구조이다. 반면에 북쪽 건물, 즉 '내헌' 부분은 측4량가이다. 이는 19세기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 가구이다. 따라서 내헌 건물이 전소되어 새로 지으면서 측4량 가구를 적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집복헌 '외헌' 자리에 해당하는 남쪽 건물의 가구를 살펴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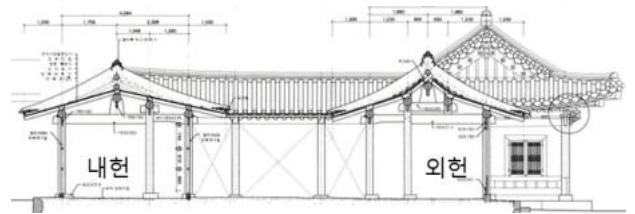


그림 8. 집복헌의 측4량가 단면(문화재청, 앞의 책)

남쪽 건물의 양통은 3,760mm로서 북쪽 건물의 4,064mm보다 작다. 그런데 남쪽 건물의 가구는 5량가이다. 집복헌 건물 전체를 다시 지으면서 양통이 상대적으로 작은

25) 현 영춘헌은 대청 2칸과 동쪽 3번째 칸의 퇴칸만 노출하고 다른 방 앞의 퇴칸은 벽과 창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사진을 보면 양끝 칸의 머름이 다른 칸들의 머름과 비교하여 높이가 낮고 색상이 진하여, 다른 칸들의 머름은 일제 강점기에 새로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퇴칸 머름 위에 분합을 달지 않고, 사벽과 쌍창을 설치하는 것은 궁궐 건물의 보편적인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쪽과 서쪽 끝 칸을 제외한 5칸은 퇴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집복헌과 영춘헌은 1985년 1차 수리하였고, 1999년 다시 기둥과 일부 초석까지 완전 해체 수리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건물을 규모가 큰 5량가로 짓고, 양통이 이보다 큰 건물을 고식의 측4량가로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헌과 외헌을 동시에 지었다면 모두 조선 후기 건축에서 유행한 5량가로 지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측4량가 부분에는 상부에 덧서까래를 얹어 전면과 후면 지붕의 기울기와 면적이 동일해지도록 조정하였다.²⁶⁾

이 역시 북쪽 건물을 화재 후에 다시 지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조는 측4량가로 지은 집복헌 내헌은 불타지 않고 남았으며, 여기에 불탄 외헌을 새로 짓고 영춘헌 서행각과 연결하면서 지붕 구조와 외양이 조화되도록 변형시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 집복헌 건물 중 북쪽 건물이 1830년 화재 때에 불타지 않고 남은 '집복헌 외헌'임은 집복헌과 영춘헌의 칸살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 같은 용척과 같은 칸살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각과 주건물로 구성된 건축에서 칸살을 달리한다면 주건물의 칸살을 넓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구의 규모도 주건물을 크게 한다.

영춘헌은 「동궐도형」에 칸살이 8척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집복헌과 영춘헌 칸살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연결된 건축인데도 칸살이 다르며 규모가 더 큰 건물의 칸살이 더 좁다. 집복헌의 1칸은 2,790mm로 1척=310mm의 9척이고 영춘헌의 1칸은 2,460mm로 1척=307.5mm의 8척이다. 집복헌의 1칸이 영춘헌의 1칸보다 1자가 크다. 이는 영춘헌을 재건하면서 8척 칸살의 5량가 팔작가구로 구성한 반면, 집복헌은 기존의 칸살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영함을 옮겨 영춘헌을 재건했다는 점에서 8척 칸살은 연영함의 칸살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영춘헌과 집복헌 건물은 불타지 않고 남은 부분을 남기되, 불탄 부분은 새로운 건축 계획 요소를 적용하여 재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궁궐 건축에 채택되지 않게 된 측4량가 가구인 현 집복헌 북쪽 건물은 광해군이나 인조 때에 지어진 것으로 1830년 화재 때에도 불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표 1. 집복헌·영춘헌 비교

현재 영춘헌 집복헌의 칸살(파란색: 2460mm, 빨간색: 2790mm)		
구 분	집복헌	영춘헌
구 조	측4량	1고주5량
칸살이	9자(2,790mm)	8자(2,460mm)
기둥단면	220mm, 230mm	240mm, 220mm
가 구	맞배+팔작	팔작가구

4. 결론

그동안 「동궐도」와 「동궐도형」에 표현된 '집복헌'과 '영춘헌'의 위치 차이는 1830년(순조 30)의 대화재로 소실된 이후 위치와 구조를 다르게 영건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필자는 문헌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두 건축의 가구를 비교하여 집복헌과 영춘헌의 구조와 본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재로 불탄 부분과 불타지 않은 부분, 전소되어 새로 지은 부분, 「동궐도」에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기한 건물의 명칭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하여 집복헌은 내헌과 외헌으로 구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집복헌에서 사도세자를 친견하는 대신들의 이동 경로와 영조와 대신들이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 집복헌은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잘못 표기된 건물의 서쪽 부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왕의 이동과 정조의 재궁 이동 동선을 통해 영춘헌을 나서자마자 통과하는 '영춘문'이 「동궐도」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장경문 남쪽, 천오문 동쪽에 그려져 있는 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되는 영춘헌의 구조로 보아 「동궐도」에 '집복헌'으로 오기된 건물이 영춘헌이며, 동궐도에 '영춘헌'으로 오기된 건물은 '정일재'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조 때에 기존 건물을 측4량가 가구 법식을 적용하면서 확장하여 영춘헌 본체를 지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순조 때에 화재로 소실되자 연영함을

26) 한양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1985년 창경궁 중창공사 최초 납품도면」에는 집복헌의 내헌과 외헌이 모두 4량가이다. 이에 필자는 1985년 공사에 참여한 김창현(당시 감독관) 및 장순용 소장과 면담하고, 1985년 공사에 집복헌과 영춘헌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영춘헌과 집복헌은 1999년 초석까지 이동하여 해체 보수하였다. 하지만, 내부 구조가 변한 일이 없고, 2019.9.3 및 2022.8.18 두 차례에 걸쳐 영춘헌 내부를 조사한 결과 집복헌 외헌의 5량가는 순조 30년 화재로 재건된 이후 모습이라고 판단하였다.

44 논문

옳게 짓는 방식으로 재건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현 영춘현과 집복현 건물은 연결되어 있지만, 건축 계획의 기본 요소인 가구와 칸살에 통일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집복현 북쪽 건물은 조선 전기적 가구법식인 측4량구조이고, 남쪽 건물(외현)과 영춘현 본채는 1고주 5량가이다. 그런데 가구 규모가 작은 집복현의 칸살이 9자인데 비해 이보다 가구 규모와 양통이 큰 영춘현 본채는 8자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집복현 북쪽 건물은 화재 때 불타지 않아 초창 시의 건축 계획 요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 집복현 북쪽 건물은 본래 '집복현 내현' 으로서 환경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 중 가장 북쪽에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 집복현 북쪽 건물은 『궁궐지』에 처음 확인되는 1695년(숙종 21)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며, 나아가 1633년(인조 11) 이전에 지은 '장경문 내월랑'의 일부를 구성했던 건물일 가능성도 있다. 현 집복현 북쪽 건물은 내전 영역의 규모가 작은 건물에 흔히 적용했던 조선전기적 가구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궐』, 고려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3
2.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2016
3. 『宮闕誌』,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s://portal.nrich.go.kr/kor/>
4. 김굉, 『구와집(龜窩集)』, 한국고전종합DB
5. 김동욱·이경미,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1 창덕궁』, 돌베개, 2015
6. 김버들·이종서, 「조선전기 측4량 건축의 구조와 특성」, 건축역사, 28권 6호, 2019. 12.
7. 『동궐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보물
8. 『동궐도형』, 규장각 소장, 奎貴9980
9.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2005,
10. 문화재청, 『창경궁 집복현 및 영춘현 수리공사보고서』, 2000,
1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list?itemId=ST&gubun=book>
12.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13. 이만희, 「창경궁 내전 권역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14. 『왕세자관례책저등록(王世子冠禮冊儲膳錄)』, 장서각(k2-2687), 1803

15. 이철원, 『왕궁사』,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동국문화사, 1954
16. 『일성록(日省錄)』,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list?itemId=IT&gubun=book>
17.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규장각(奎 13637), 1800
1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19. 『昌慶宮營建都監儀軌』, 규장각(奎 14324), 1834
20.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장서각(K2-3619_001), 1698
21. 『효원전일기(孝元殿日記)』, 규장각(奎 13040), 1904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창현, 장순용님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양대학교 건축학술정보관 및 동아대학교박물관 그리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주신 창경궁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접수(2022. 09. 13)

게재확정(2022. 10. 16)